

김영록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중대 하자” 재조사 촉구

‘ARS 응답 중단’ 사례 2천308건 심각
선거 공정·투명성 훼손 제도 개혁 필요
“당지도부·선관위 책임있는 조치 나서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예리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영록 전남지사가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ARS 응답 중단 사태’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경선 과정 전면 재조사와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줄세우기식 비민주적 경선 방식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예비후보는 “결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패했지만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이라는 대의를 위해 경선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중앙당이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마디의 답변도 내놓지 않

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전남지역 응답자 2천308건의 ‘ARS 먹통’, 선거인단 대상 투표 안내 부실, 권리당원의 중복투표, 경선 전반의 정보 비공개 등이 발생했다”며 “경선의 공정성·투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전 예비후보는 “결선투표 첫날 ARS 투표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전남이라고 답변했을 때 전화가 끊기는 사례가 2천308건 발생했다”며 “어른조사기관의 설계 부주의라는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1회 재발신 만으로 경선을 진행한 중앙당의 조치는 5-7%에 불과한 응답률을 감안할 때 2천여명이 넘는 전남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치유 불가능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예비후보는 “2천308건은 전화를 받고 응답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화가 끊긴 것”이라며 “응답률을 고려하면 한 번 더 전화했다고 신뢰성이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 31만여 권리당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당원이 다수 발생했고 예비경선과 본경선에 투표했던 사람이 결선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왜 이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가처분 신청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중앙당이 관련 자료를 쥐고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김 전 예비후보는 “당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정당”이라며 “민주정당이라면 스스로 문제를 재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결과를 수용한 기존 입장과 현재 문제 제기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예비후보는 “대통합의 제안자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적 고통을 느껴 일단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그것이 경선 과정의 모든 문제까지 승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중앙당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전 예비후보는 “그것은 당에서 취할 조치로 여러 방법이 있다”며 “중대한 오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있었다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당의 조사가 우선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예비후보는 중앙당과 당 선관위를 향해 ARS 설계 오류 발생 경위, 여론조사기관의 기본 설계와 수정 내역, 해당 오류가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공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은진기자

민주 전남도당, 광역의원 비례 순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경선(권리당원 100%) 결과, 비례대표 1번, 3번, 7번을 배정받는

여성 분야에서 1위 박은정, 2위 이은정, 3위 정다현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2번, 6번을 배정받는 청년 분야는 박진한, 김동권 후보 순서다. 4번을 배정받는 사회적 약자 분야는 박정선 후보가 선출됐다. /김재정기자

‘아시아문화도시 20년’ 광주 문화시설 3배 늘었다

이용자수 증가 문화산업 매출 300% 성장
특별별 연장 맞춰 미래 전략 구체화 절실
전문가들 “市·道 광역관광체계 구축 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된 지난 18년 간 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이 3배(288%) 가량 늘어나는 등 문화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년 성과 진단과 제언 포럼’을 열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포럼에는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과 황인재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문화기획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유효 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광욱 광주시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년 성과와 진단’

이라는 기초 발제를 통해 “지난 20년의 가장 큰 성과는 광주의 도시 전반이 문화적 환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광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사업 추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06년 12개에 불과했던 도서관은 2024년 30개로 늘었고 박물관은 6개에서 13개로, 미술관은 4개에서 14개로, 문예회관은 5개에서 9개로 증가했다. 2006년 1개도 없던 생활문화센터는 2024년 14개가 조성됐다.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501만명에서 733만명으로 81% 늘었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성우 UCI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는 “앞으로는 골목, 하천, 녹지, 보행 동선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문화도시 전략과 행정통합에 따라 광주·전남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본부장은 “2024년 기준 광주지역 문화산업 매출은 사업 초기 대비 약 300% 이상 증가했다”며 “AI 기반 콘텐츠와 지식재산(IP) 확산을 통해 아시아 문화산업 협력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국힘 양혜령, 광주 광역의원 출마 선언

북구1 선거구...10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이 29일 광주 북구1 선거구 광역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의 미래, 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양 예비후보는 “전국 최초로 광주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4개 선거구에 적용된다”며 “민주당을 견제하는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광주 북구 교도소 이전 부지에 유치하겠다”며 “39년간 치과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유치 되도록 정치·행정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또 “동광주IC-광산IC 도로 확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다”며 “1986년 4차로 확장 이후 25년 만에 추진되는 6·8차로 대규모 확장사업이 조기에 완공돼 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기자

우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161(두암동)
http://farmersbank.nonghyup.com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믿고 찾는 든든한
우리지역 희망동행 광주농협

● 본 점 : 250-5000	● 서 방 지 점 : 521-9731	● 문 화 동 지 점 : 263-0537	● 밤 실 지 점 : 251-3701	●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 오 치 점 : 250-4661
● 동 광 지 점 : 266-7144	● 충 효 지 점 : 266-6620	● 중 흥 동 지 점 : 265-9676	● 일 곡 지 점 : 571-8000	● 매 곡 점 : 574-0515	● 동 광 주 점 : 269-5100
● 오 치 동 지 점 : 264-0341	● 두 암 동 지 점 : 263-6619	● 문 흥 동 지 점 : 268-7011	● 용 주 지 점 : 528-4100	● 문 화 점 : 266-0553	● 두 암 점 : 250-5127
● 풍 향 지 점 : 512-4004	● 산 수 동 지 점 : 232-6956	● 매 곡 동 지 점 : 573-4111	● 영 농 자 재 선 터 : 267-5653	● 일 곡 점 : 573-8003	● 충 효 점 : 266-6630